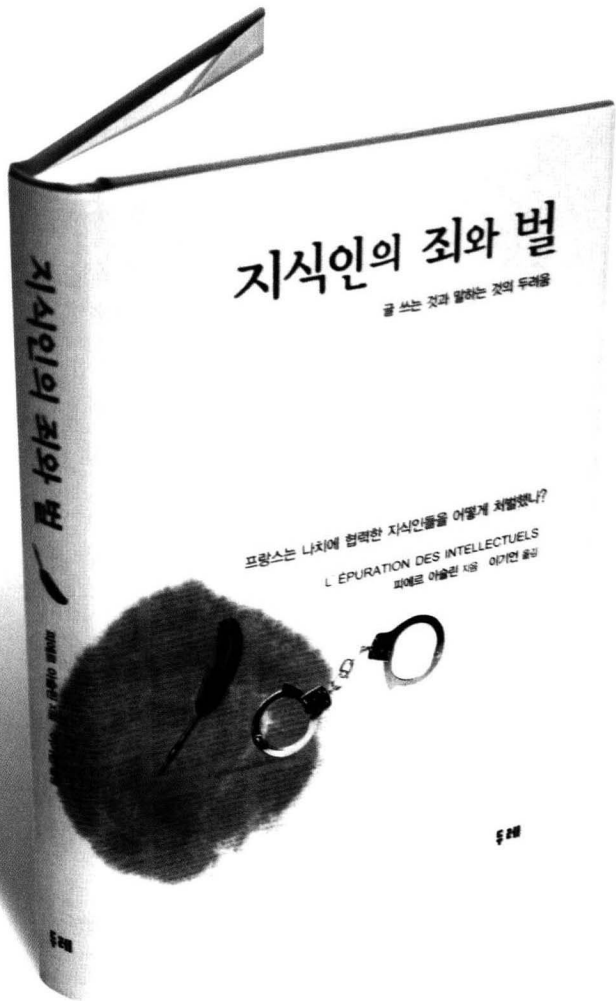


변호와 심판, 그 역할 바꾸기



● 이 글을 쓴 손유경은 문화기획집단 <퍼슨웬>의 기획위원으로 있으며 <대담한 책임기> <인텔리겐차>의 공저자다. 서울대 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현재 외국어대 강사로 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프랑스의 '암흑 음식점'이란 곳을 알게 됐다. 손님들이 식사하는 방에는 털끝만한 불빛도 허용되지 않아 음식을 먹으려면 잔뜩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더듬거리며 잡은 수저에 음식을 담고 그것을 입안으로 가져가는 일만 성공시키면 그 순간부터 펼쳐지는 깊고 높은 맛의 세계는 하도 오묘한 것이어서 '빛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힘들다고 한다(서빙을 하는 사람들 모두가 시각장애인이라는 대목에서 잠시 전을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선의 빛을 모두 거두어들이는 암흑 속에서 '절대미각'을 단련시키고 있었다.

이렇게 어둠이 품어줘야만 제대로 자라나는 것들이 있다. 내면적 동기, 진심, 신념, 양심 등 우리가 대체로 '마음'이라 바꿔 부르는 것들이 그렇다.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마음의 특성들은 원래 의도한 상태, 즉 공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없는 내면적 동기로 남아 성장하기 위해, 공개된 빛을 피할 수 있는 내밀성과 보호를 필요로 한다. 아무리 절실한 동기를 느꼈다 하더라도 일단 공개적 감시에 드러나고 노출되면, 인간의 마음은 통찰보다는 오히려 의심의 대상이 된다."

프랑스 혁명이 왜 숙청의 피로 얼룩진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밝히는 과정에서 아렌트는 비참한 처지의 인민에 대한 연민과 진정한 헌신이 절대적 선봉으로 군림하게 되자 위선에 대한 로베스피에르의 열정적 증오가 시작됐다고 서술한다. 정치적 투쟁이 사라지고 도덕적 심판이 난무하는 공공 영역에서 통치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진심'(양심)을 '증명'하는 데 헌신의 힘을 쏟게 된다. 그러나 '진심'(양심)이란 본인조차 알아보기 힘든 깊은 어둠 속에서 계속 자라나고 매순간 움직이는 것이어서 원래가 증 '명'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아니다.

숙청의 칼을 든 손을 아무리 높이 치켜들어도 무엇을 두 동강 내야 할지 알지 못한 사람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에서 진행된 지식인 숙청에 관한 책 《지식인의 죄와 벌》은 이처럼 본보기들의 희생을 노릴 수밖에 없도록 운명지어진 바로 그 눈먼 숙청에 관한 이야기다.

조국과 민족을 배반한 자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숙청의 대의는 존중되어야 마땅했다. 특히나 선량한 시민들을 잘못된 사상이나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지식인들의 책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으로 간주됐다. 독일군에 부역한 것으로 알려진 기자와 문인들은 국민적 지탄을 받으면서 사형당하거나 공민권을 박탈당하게

나 또는 강제 노역을 치르면서 그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분노한 민중들의 감정에 좌우되는 여론 재판의 예라든가 부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적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받은 사람, 혹은 도둑이 '도둑이야!' 하고 소리치는 심보로 상대방의 잘못만 크게 부풀린 자들의 예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전쟁 직후 시작된 프랑스의 지식인 숙청은 시간과 거리에 의한 조율을 거치지 않았기에 그 자체 하나의 시행착오로 남게 됐다는 것이 저자의 관점이다. 부역자 처단 과정에서 반사 이익을 챙긴 수많은 레지스탕스의 이야기 역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물론 이 책을 '대사회적 책임을 지닌 지식인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각종 부작용 혹은 스캔들' 쯤으로 읽고 싶은 마음은 없다. 숙청의 대의만큼이나 숙청의 기준 혹은 형평성에 대해서라면 오죽 할 말들이 많겠는가. 누군들 다른 버전의 사연이 없고 누군들 억울하지 않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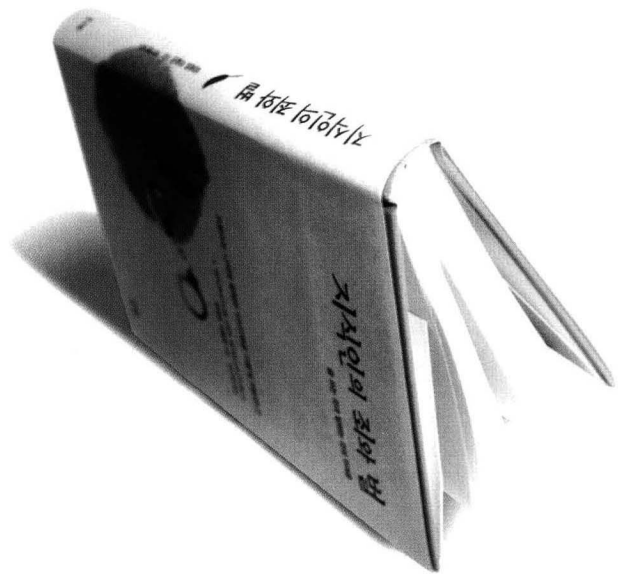
하지만 "우리는 패배했기 때문에 반역자이다. 이것은 당연한 법칙이다"라는 말을 남긴 후 재판을 거부하고 자살으로써 생을 마감한 드리의 라 로셀은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자신의 부역 행위가 역사적으로 옳은 일이었다고 믿었다기보다는(물론 그랬을 수도 있다) 자신을 설명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죄인으로 수락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신프랑스지> 발행인이었던 그는 그의 동료들이 자신들의 과거 부역 행위는 어쩔 수 없는 선택, 강요된 행동, 혹은 이중 플레이의 결과였으며 선처를 호소할 때, "진정성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특이한 사람이다. 그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다시 아렌트의 말을 되새기게 된다. "언행의 이면에 있는 동기들은 드러남 때문에 본질을 상실한다. 동기들은 겉으로 드러날 때 '가상' 이 된다. ...은폐할 때는 솔직했던 것이 노출될 때는 거짓된 것같이 보인다."

라 로셀의 자살은 프랑스의 지식인 숙청이 마주친 하나의 심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그는 숙청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그 각본을 역이용 혹은 초월해 버린 게 아닐까. 역사의 패배자들은 변명(설명)하고 승리자들은 판단(심판)하도록 짜여진 숙청의 시나리오를 받아들인 라 로셀은 변명을 하는 대신 스스로가 자신의 심판자가 됨으로써 숙청의 칼을 한껏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것이 바로 프랑스의 지식인 숙청이다. 남의 나라 일이니 우리 사정에 그대로 견줄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차치하

고서라도 과연 우리에게 과거 청산의 '의지' 이상의 무엇이 있기는 한 건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우리의 앞길은 이미 수백 수천의 라 로셀들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은 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간 반민족 행위자들의 블랙리스트 백 장을 만들어 본들 침묵의 심연을 뛰어넘을 수는 없을 터이다. 운 좋게도 '역사의 승리자' 로 남아 있게 된 우리들도 이제는 시나리오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라 로셀은 패배자이면서도 심판함으로써 각본을 조롱했다.

이와 반대로 '역사의 승리자' 인 우리들은 심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설명함으로써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침묵하는 가해자들을 대신해 우리가 나서서 그들의 역사적 상황과 선택과 신념들을 변명해 보고 변호해 보고 설명해 보는 길. 그러다보면 우리의 과거 청산은 복수심에 가득 찬 분풀이나 정치적 전략의 악순환 너머로, 그리고 어쩌면 '성찰' 로 넘어가는 문턱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추천**



《지식인의 죄와 벌》 피에르 아술린 지음 | 이기연 옮김 | 두레 | 256쪽 | 값 12,800원